

테마칼럼

-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교육해법은 상호 의사소통부터



김왕복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가 혼란을 겪고 국가경쟁력에 흠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6명을 선택했다.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학교 교육현장에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

한편, 교육감들은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국가백년대계를 최우선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고려 또는 특정 교사집단에 호혜적인 정책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내용적으로는 민의가 반영되고 절차적으로는 참여가 보장된 합리적인 교육정책들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변선스님

종교가 자기가 창시된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근원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 또한 인도 불교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인도의 성지를 이교도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해인사·불국사 같은 불교의 성지를 타종교인들이 관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도불교의 멸망에서 얻은 교훈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외적인 요소가 불교를 사라진 전부 이유일까요? 근본적으로는 불교 자체의 내부에서 기인합니다.

으로 바뀌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까요? 대흥사찰이나 대형교회가 지금 신도 한 명당 몸값이 매겨지는 그런 실태입니다.

기고



김명권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그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한방진료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보급되고 있다.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한의약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내 민간한방의료 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특성과 실정에 알맞은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의약과 공공보건사업

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의약을 기반으로 중풍,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한인 점을 고려, 운동요법·기공요법·식이요법 등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까지 교육하며 치료·재활도 함께 상담해주고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수요가 많은 분야의 진료도 개발할 방침이다.

도시인들 농촌서 쓰레기 태우는 행위 삼가야

며칠 전 무안 주변 국도를 달리던 중 농가에서 좀 떨어진 들간의 농로 쪽에서 차가 한 대 서있었는데 운전수가 트럭에서 뭔가를 열심히 꺼내 논두렁에서 계속 태우고 있었다.

시 차들이 농촌 도로가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몰래 태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도시의 나쁜 공기를 피해 농촌에 오는 사람마저 농촌도 도시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시설

'편중 인사' 벗어나는 게 '인적쇄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준비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다. 오죽했으면 "고향이 어디에다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오면 성골, 고향이나 학교 가운데 하나라도 같으면 진골", "호남인맥은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뉠고 있었는가.

대 이은 화천기공 메세나, 타기업 확산돼야

국내 굴지의 공작기계 생산업체인 화천기공(주) 창업주와 가족들의 대를 이은 메세나가 눈길을 끌고 있다. 화천기공 권영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타계한 어머니가 보유했던 이 회사의 주식 6만5817주(시가 33억6000만원)를 증여해 최근 재단법인 서암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다. 한국에 메세나라는 개념이 본격 도입된 것은 1990년대다. 국내 메세나 운동의 '막형' 격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품 악기를 무상으로 빌려 주는 악기은행을 비롯해 항공권 무상 지원, 음악 장학금 지급을 통해 음악 영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無等鼓

참 고약한 물건이다. 90분 내내 웅웅거리며 선수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말이 응원도구지 알고 보면 경기를 방해하는 훼방꾼이다.

이 각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시끄러워 다른 선수들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지독한 소음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부부젤라



실제 부부젤라의 소음도는 전기톱(100db), 잔디깎이 기계(90db)보다 훨씬 심한 127db로 일반 소음계의 한계치인 130db에 육박한다.

29일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3차전 상대인 나이지리아와 경기할 때 시끄러운 악기가 또 하나의 적이 될 듯하다. 가제는 개런이었던가 같은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를 응원하는 남아공 관중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부부젤라를 미친 듯이 불어넣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